

작가노트

작품제목 : 바라보기... 보여지기... 2009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일요일이었지요. 등산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다른 때와 달리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니 산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이네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나섰지요. 가는 도중 계속 깨지 않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창유리에 연신 머리를 부딪치며……. 산에 도착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허리에는 밧줄이 매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긴 여정 끝에 정상에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더군요. “야호~~~, 야호~~~”가장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는 절 부르시더니, “저 아래 뭐가 보이니?”하시는 거예요. 전“코딱지만한 집이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래, 저 아래 코딱지만한 집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코딱지만한 집들에서 아옹다옹 살고 있는 거란다.” “여기서는 코딱지만한 집들 안에서 온갖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지.”저는 솔직하게 말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네” 그러면서 산을 내려 왔습니다. 산위에서 바라본 세상의 코딱지만 한 집…….그 안에서 바라본 세상…….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바라보는 것일까? 보여지는 것 일까?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Looking at... Being Looked at... 2009

It was when I was little. I don't remember quite clearly, but it was before I entered elementary school. On a very sunny Sunday, my father who loved mountain climbing, woke me up and told me to follow him; which was unusual. I woke up with sleepy eyes and followed him. On the way to the mountain, I was drowsy and bumped my head against the car window in sleepiness……. I climbed the mountain after my father, who had a great love for the mountains. When we reached the top after a long road, the whole view of downtown Seoul came into view. It was fabulous. Before descending the mountain, father called me and asked, "What do you see down there?" I answered, "I see houses, they look so small." "Yes, the houses down there look so small. People are struggling for a living in such a small world. We can see from here people who live full of thoughts." Frankly speaking, I couldn't see people down there. Yet, I answered "yes" to my father. The small houses seen from the mountain top and the world seen in the houses……. The world looking different from different viewpoint……. Is it looking at us? Or is it being looked at? What about us living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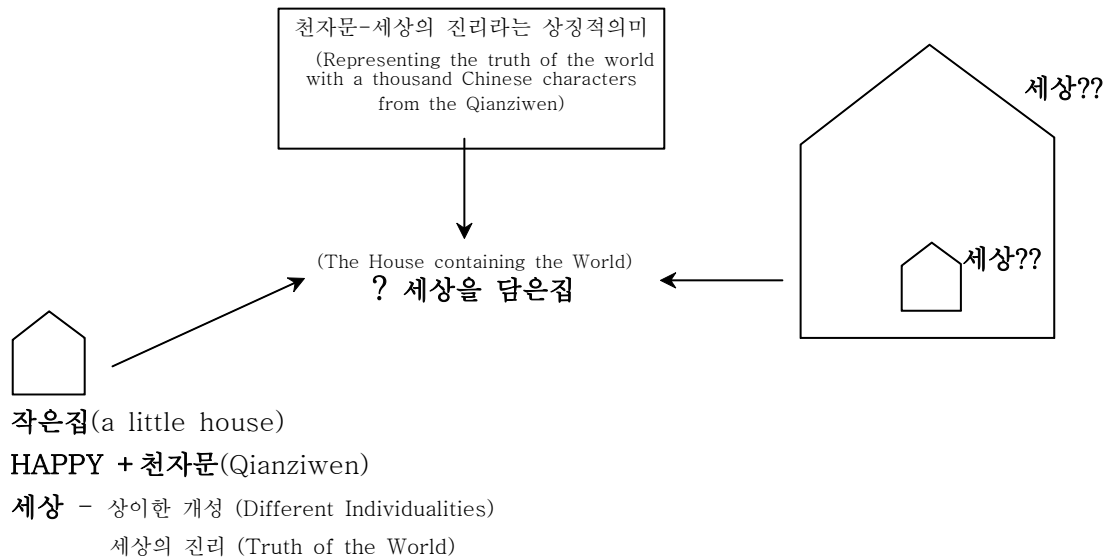
1. 천자문 이야기 - 세상의 진리가 담긴 세상을 바라본다…….

The Story of the Qianziwen(The Thousand Chinese Characters) - Looking at the world containing the truth…….

2. 데리다의 '차연 difference' 개념

Derrida, Jacques - 'différance' (difference 와 deferment 의 합성어)

3. 작품전개



양 - 개인, 작가, 관객, 바라보는 주체 ,보여지는 객체

The sheep - the individual, the author and the spectator, the subject which sees ,The object which comes to seem

구름 - 관객의 일차적인 시점에서 그냥 하얀 세상만 보여주고싶다.
그냥 편안함을 유도한다.

The cloud - To seem from the point of view which the spectator is primary only as it is white world, wants. Is comfortable induces as it is.

*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밝은 느낌의 집들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My installation is to let the fairy-tale houses come into view at first sight.)

4. 설치 - 자크 데리다의(Derrida, Jacques) ‘시선의 권리(droit de regards)’ 를 생각해 보자 -큰집과 작은집, 큰양과 작은양, 관객이 점점 다가올 때 마다 보여지는 모습을 세분화 한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이며, 어느 것이 나고, 누가 주체인가? 생각할 시간을 주자.

Installation -Try to think `droit de regards` of the Derrida -With the big house the small house, with the big sheep the small sheep, when the spectator approaches little by little, is a E and subdivides the features which is visible. I is who, the point of view which I sees is where, which thing is born, is who subject? Hour when will think the runner.

5. **내가보고싶은세상** - 보여지는 실체와 느껴지는 실체, 보이는것과 보고싶은것, 바라보는 것일까? 보여지는 것일까? 이 문제는 조금만 흔들어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것, 보여지는것, 이 모든 것들이 'HAPPY'한 모습이였으면 한다.

조그만 집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이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고 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싶다.

'HAPPY'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관객은 'HAPPY'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난 다시 관객을 바라보며 'HAPPY' 해진다. 그리고 'HAPPY'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The world I wish to see - The seen reality and the felt reality - what is looked at and what I wish to look at.

Am I looking at it? Or am I being looked at? this question brings about quite different results.

However, I hope what I look at and what is looked at are in happiness.

I wish to feel joy looking down at the little houses.

This is the world I look at and the way I am looked at by others.

When I work in 'HAPPINESS' and the viewers enjoy my work in 'HAPPINESS', I feel so 'HAPPY' to see them happy.

And starts again with the mind which is 'HAPPY'